

문장론

0에서 1까지, 순서대로 쌓는 국어문법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문법 공부는 건물 짓는 일과 같습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비와 인테리어를 합니다.

벽돌 하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옆의 벽돌과 맞물려야 벽이 됩니다.

음운은 형태소와, 형태소는 문장과 맞닿아 있고,

어간은 어근과, 어미는 접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것부터 쌓아갑니다.

그렇게 전체를 열 바퀴 돌고 나면,

비워둔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이 책을 펴기 전에

이 책은 구매하신 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허용되는 것

- 구매하신 본인의 학습에 쓰는 것
- 본인이 보기 위해 인쇄하는 것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정리해 쓰는 것

금지되는 것

-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공유하는 것 (메신저·메일·클라우드 링크 포함)
- 블로그·카페·자료실·SNS 등 온라인에 올리는 것
- 단체·학원·학교에서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
- 내용을 재편집·재판매하거나 다른 교재에 옮겨 실는 것
- 이미지로 촬영·캡처하여 배포하는 것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오래 붙들고 만든 것입니다.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알려주시되 파일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다음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이유

하나 · 효율

방학마다 문법 특강이 열립니다. 여덟 번을 배우고 마지막 시간에 체언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면 붙잡을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남지 않습니다.

둘 · 순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운 다음이 곧바로 품사입니다. 형태소를 모르는 채로 어간과 어근을 가르라는 셈입니다.

셋 · 부담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들어갑니다.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 이해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됩니다. 불규칙 활용을 첫 달에 만나면 대개 거기서 놓습니다.

넷 · 범위

학교는 전 범위를 하지 않습니다. 1학기에 음운 변동과 문법 요소, 2학기에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 단어와 문장은 비어 있는 채로 학년이 올라갑니다.

전 범위가 한꺼번에 필요해지는 때는 고2입니다. 비워둔 자리가 그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각 권을 따로 뒀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권만 보셔도 막히지 않게 썼습니다.

쓰면서 참고한 것

학력평가와 수능의 문법 기출, 지문형 문항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별 교사용 교과서와 자습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여러 교과서에 거듭 나오는 것일수록 본질에 가깝다고 보고, 그런 것을 앞쪽에 두었습니다.

문제 연습은 기출문제집으로 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을 권합니다. 이 책의 확인문제는 단계마다 대여섯 개뿐입니다. 방금 배운 것을 알고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장치이지 연습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단원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열 바퀴 돌면서 한 겹씩 올립니다.

구간		하는 일
0 ~ 0.2	땅 파기	바닥을 깊게 팝니다
0.3 ~ 0.6	기둥 세우기	뼈대를 올립니다
0.7 ~ 0.9	방 만들기	벽을 치고 나눕니다
1	인테리어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각 단계 머리에 몇 바퀴째이고 어느 구간인지 적어뒀습니다.

이 책이 문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원칙

1. 문법은 온통 기준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것도 기준입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누는 것도,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누는 것도 전부 기준이에요.

기준은 자격을 줍니다. 한 사람이 남자이면서 선생님이면서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름도 달라져요.

'꽃' 하나를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름
무엇을 나타내는가 (의미)	명사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기능)	체언
모양이 변하는가 (형태)	불변어
문장 속 자리는 어디인가 (성분)	주어

넷 다 맞습니다. 하나의 단어에 이름이 네 개 붙은 거예요.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먹-'은 실질 형태소인가?"라는 질문에 "혼자 못 쓰니까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혼자 쓸 수 있느냐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같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군밤과 군소리, 묻어와 물어, 그림을 그림 — 이 책에는 이런 짝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 습관**이 문법 공부의 절반입니다.

2. 정의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읽고 [일꼬]

닭고기 [닥꼬기]

같은 받침 **ㄹ**인데 발음이 같립니다. 왜 그럴까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읽고'는 **용언의 어간** '읽-'에 **어미** '-고'가 붙은 말입니다. '다만' 조항에 정확히 걸려요. 그래서 [**일꼬**].

'닭고기'의 '닭'은 명사고, '고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닥꼬기**].

예외를 외운 게 아니라 예외의 조건을 읽은 겁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는 두 마디를 흘려보내면, 두 발음이 왜 다른지는 영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올 때마다 뜻부터 풋니다. **어간(語幹)**의 幹은 줄기, **어미(語尾)**의 尾는 꼬리예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꼬리는 움직입니다. 이걸 알면 '변하지 않는 부분·변하는 부분'을 따로 외울 일이 없습니다.

3. 예시가 실력입니다

문법은 규칙을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시를 많이 본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 한 줄은 시험장에서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시를 수십 개 본 학생은 **처음 보는 단어도 같은 원리로 잘라냅니다.**

그중에서도 **짜를 이루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여요.

짜	무엇이 같았나
읽고 [일꼬] ↔ 닥고기 [닥꼬기]	뒤가 어미냐 아니냐
순가락 ↔ 젓가락	ㄹ이 ㄷ으로 변한 말이나, 사이시옷이나
돋보기 ↔ 돛자리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느냐
군밤 ↔ 군소리	구운 밤이나, 쓸데없는 말이나
땅에 묻어 ↔ 길을 묻어	규칙이나 ㄷ 불규칙이나
그림을 그림	명사냐 명사형이나

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만 다르게 — 이 책이 예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훑지 말고 소리 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리즈 전체 지도

권	제목	이 책이 답하는 질문
1	음운론	왜 쓴 대로 읽지 않을까
2	형태론	이 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3	품사론	이 말은 무엇일까
4	문장론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5	중세국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6	규범론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할까
7	담화론	문장은 맞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

각 권은 따로 사서 봐도 완결됩니다. 필요한 개념은 그 권 안에서 다시 세워요. 다만 순서대로 보시면 앞 권에서 비워둔 자리가 뒷 권에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권에 대하여 — 문장론

이 책이 답하는 질문

이 말들이 어떻게 문장이 될까

3권까지는 **낱개**를 봤습니다. 소리 하나, 단어 하나, 품사 하나요.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문장이 되면 낱개일 때는 없던 것들이 생겨나요. 높임, 시제, 피동, 사동 같은 것들이요.

이 책만의 성격 — 자리가 이름을 바꿉니다

3권에서 **품사는 웬만하면 안 변한다**고 했죠. '꽃'은 어디에 가도 명사예요.

그런데 **문장 성분은 다릅니다**. 같은 '꽃'이 자리에 따라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서술어도 됩니다.

문장	'꽃'의 품사	'꽃'의 문장 성분
꽃이 예쁘다	명사	주어
꽃을 샀다	명사	목적어
이것은 꽃이다	명사	서술어

이 책은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놓이느냐로 모든 것이 정해져요.

이 책만의 성격 — 문장이 문장을 품습니다

문장론에서 처음 만나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갑니다**.

나는 그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온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저 문장 안에서는 '**사실**'을 꾸미는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어가 긴 문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레고 블록 안에 레고 블록을 끼우듯이요**.

어디에 힘을 주었을까요

구간	무엇
0 ~ 0.2	문장의 뼈대 — 성분과 자릿수
0.3 ~ 0.5	문장이 겹치는 법 — 이어지고 안기고
0.6 ~ 0.9	문법 요소 — 종결·시간·높임·피동사동
1	남은 표현들

0.8 높임과 0.9 피동·사동이 가장 두껍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실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고비는 어디일까요

0.9 피동·사동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 접사가 겹칩니다. -이-, -히-, -리-, -기- 이 넷은 **피동에도 쓰이고 사동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양만 봐서는 못 가려요.

㉡ 우리가 평소에 틀리게 쓰고 있습니다. '잊혀지다', '보여지다', '소개시켜줘' 같은 말들이요. **익숙한 게 틀린 거라서**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르는 방법은 있습니다. 0.9에서 **세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앞 권과의 관계

3권 마지막 단계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이 다르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문 앞까지 온 거예요.

이 책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3권을 안 보셨어도 0단계에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0.9의 피동·사동 접사는 **2권 0.8의 지배 접사**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문장 구조를 바꾼다"고만 했던 것을, 여기서 실제로 바꿔봅니다.

0 자리가 이름을 바꾼다

START

땅 파기

도면을 펼치고 방 배치부터 봅니다. 같은 벽돌도 놓이는 자리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①

강의 0

① 문법요소 개괄

휴대폰 카메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립니다.

3권까지 우리는 **단어에 이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명사, 동사, 관형사... 그게 품사죠.

그런데 문장을 보기 시작하면 **이름이 하나 더** 필요해집니다.

같은 단어, 다른 역할

'꽃'이라는 단어를 놓고 문장을 네 개 만들어볼게요.

문장	품사	문장 성분
꽃이 예쁘다	명사	주어
나는 꽃을 샀다	명사	목적어
이것은 꽃이다	명사	서술어
꽃에 물을 준다	명사	부사어

품사는 계속 명사인데 역할은 넷이나 됐습니다.

품사 = 단어에 원래 붙어 있는 이름
문장 성분 = 문장 속 자리에 따라 맡는 역할

사람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역할은 여러 개.

집에서는 아들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알바하는 데서는 직원이고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뀐 겁니다.

세는 단위도 다릅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품사의 단위 = 단어
문장 성분의 단위 = 어절 (띄어쓰기 단위)

예쁜 꽃이 정원에 가득 피었습니다.

단어로 세면 (품사)

예쁜	꽃	이	정원	에	가득	피었습니다
형용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7개입니다. 조사가 따로 세어지죠.

어절로 세면 (문장 성분)

예쁜	꽃이	정원에	가득	피었습니다
관형어	주어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

5개입니다. 조사가 앞말에 붙어 한 덩어리가 돼요.

차이는 조사에서 생깁니다. 조사는 단어지만 띄어 쓰지 않으니까요.

이 책이 하는 일

3권까지가 재료를 고르는 일이었다면, 이 책은 재료를 자리에 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리에 놓고 나면, 재료만 있을 때는 없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높일 것인가 (높임)
언제 일어난 일인가 (시간)
누가 하고 누가 당하는가 (피동·사동)

이런 건 단어 하나로는 만들 수 없어요. 문장이 되어야 생깁니다.

확인문제 0

1.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를 한 줄로 쓰세요.
2. '꽃'이 네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예를 각각 만드세요.
3. "예쁜 꽃이 정원에 가득 피었습니다"의 단어 수와 어절 수를 각각 쓰고, 왜 다른지 설명하세요.
4. 문장이 되어야만 생기는 것을 세 가지 쓰세요.

START CLEAR

자리가 이름을 바꾼다

다음 01 · 문장 성분 일곱

남은 것 10 / 10

0.1 문장 성분 일곱

방에 들어갈 자리를 일곱 개로 나눕니다. 없으면 안 되는 자리와 있으면 좋은 자리로요.

미뤄둬주세요 여기서 1가지를 비워둡니다

02에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문장 성분은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달라요.

갈래	성분	없으면?
주성분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보어	문장이 무너짐
부속성분	관형어 · 부사어	문장은 살아 있음
독립성분	독립어	빼도 멀쩡함

주(主)는 주인, 부속(附屬)은 딸린 것, 독립(獨立)은 홀로 섬입니다. 이름이 곧 설명이에요.

주성분 — 없으면 문장이 안 됩니다

성분	무엇	예
주어	무엇이	꽃이 피었다
서술어	어찌한다	꽃이 피었다
목적어	무엇을	나는 밥을 먹었다
보어	되다·아니다 앞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보어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가'가 붙었다고 다 주어가 아닙니다.

'되다'와 '아니다' 바로 앞이면 보어예요.

문장	판정
물이 얼음 이 되었다	보어
그는 학생 이 아니다	보어
얼음이 녹았다	주어

'되다·아니다' 앞. 이 둘뿐입니다. 다른 서술어 앞에는 보어가 안 옵니다.

부속성분 — 꾸미는 말

성분	무엇을 꾸밈	예
관형어	체언	예쁜 꽃 · 새 옷 · 나의 책
부사어	용언·관형어·부사어·문장	빨리 걷다 · 매우 예쁘다

관형어가 되는 것들

형태	예
관형사 그대로	새 옷 · 모든 사람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나의 책 · 학교의 규칙
용언 + 관형사형 어미	예쁜 꽃 · 먹는 밥 · 갈 사람
체언 단독	시골 풍경 · 학교 앞

부사어가 되는 것들

형태	예
부사 그대로	빨리 걷다 · 매우 예쁘다
체언 + 부사격 조사	학교에 가다 · 친구와 놀다
용언 + 부사형 어미	예쁘게 웃다 · 늦도록 놀다

★ 필수적 부사어

부사어는 부속성분이라 빼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못 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문장	부사어를 빼면
나는 그것을 책상에 두었다	"나는 그것을 두었다" — 어디에? ×
그는 아버지와 아주 닮았다	"그는 닮았다" — 누구와? ×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물이 변했다" — 무엇으로? ×

두다 · 닮다 · 변하다 · 삼다 · 넣다 같은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데리고 다닙니다. 이런 걸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 왜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꼭 데리고 다닐까요

서술어마다 **필요한 성분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를 세는 방법은 **0.2**에서 배웁니다.

★ 부사어는 두 종류입니다 — 무엇을 꾸미느냐

꾸미는 범위가 다릅니다. 한 낱말만 꾸미는 것과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이요.

	무엇을 꾸미나	예
성분 부사어	특정 성분 하나	그는 빨리 걷는다 · 꽃이 매우 예쁘다
문장 부사어	문장 전체	다행히 비가 그쳤다 · 과연 그는 천재다

자리를 옮겨보면 바로 알립니다.

다행히 비가 그쳤다. / 비가 **다행히** 그쳤다. / 비가 그쳤다, **다행히**. → 다 됩니다

그는 빨리 걷는다. / × **빨리** 그는 걷는다. → 어색합니다

성분 부사어는 꾸미는 말 바로 앞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문장 부사어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에 걸리니까요.

문장 부사어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는 일	예
양태 부사어	말하는 이의 태도를 드러냄	다행히 · 과연 · 설마 · 확실히 · 아마
접속 부사어	앞뒤를 이어줌	그러나 · 그리고 · 따라서 · 그러므로

💡 '및'과 '내지'는 문장 부사어가 아닙니다.

"사과 **및** 배" — 이어주기는 하는데 **단어와 단어**를 잇죠. 문장 전체에 걸리지 않으니 **성분 부사어**입니다.

접속이라고 다 문장 부사어는 아니에요. **무엇을 잇는지**를 봐야 합니다.

독립성분 — 빼도 멀쩡합니다

형태	예
감탄사	어머 ,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체언 + 호격 조사	철수야 , 밥 먹자
제시어	청춘 , 이것은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다

빼보세요. 문장이 멀쩡하죠.

그게 독립성분입니다.

확인문제 0.1

1. 문장 성분 일곱을 세 갈래로 나눠 쓰세요.
2. 주성분·부속성분·독립성분을 한자 뜻으로 설명하세요.
3. 보어는 어떤 서술어 앞에서만 나타나나요?
4. 다음에서 관형어와 부사어를 모두 찾으세요.
"어머, 새 옷이 정말 예쁘게 어울린다."
5. 필수적 부사어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6.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를 가르는 방법을 쓰세요.
7. 다음 부사어를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누세요.
다행히 · 빨리 · 그러나 · 매우 · 과연 · 및

STAGE 01 CLEAR

문장 성분 일곱

다음 02 · 서술어의 자릿수

남은 것 9 / 10

0.2 서술어의 자릿수

★★★★★

CHAPTER 02 / 10

땅 파기

기둥마다 몇 개의 자리를 받쳐야 하는지 셉니다.

회수 앞에서 비워둔 1가지를 여기서 채웁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0.1 끝에서 미뤄둔 문제입니다. 어떤 서술어는 성분을 하나만 데리고 다니고, 어떤 서술어는 셋씩 데리고 다닙니다.

자릿수 = 서술어가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 하는 성분의 수

식탁에 의자를 몇 개 놓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 먹는 서술어가 있고, 셋이 앉아야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한 자리 서술어 — 주어만

꽃이 피었다.

아기가 운다.

바람이 분다.

날이 밝다.

물이 얼었다.

주어 하나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더 필요 없고요.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 하나 더

주어 + 목적어

내가 밥을 먹었다.
그가 책을 읽는다.
고양이가 파리를 잡았다.

주어 + 부사어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그는 아버지와 닮았다.
나는 학교에 간다.

주어 + 보어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는 그것을 책상에 두었다.
그는 동생을 양자로 삼았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주다 · 받다 · 넣다 · 두다 · 삼다 · 주다 같은 것들입니다. 주고받는 일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다 있어야 하니까요.

★ 여기가 핵심입니다 — 외우지 마세요

'주다·받다·넣다·삼다'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서술어인데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돌다'를 보세요

지구가 돈다 → 한 자리
달이 지구를 돈다 → 두 자리

같은 '돌다'입니다. 그런데 뜻이 다르죠.

- **자전** — 스스로 도는 것. 도는 주체만 있으면 됩니다. → **한 자리**
- **공전** — 무언가를 돌레로 도는 것. 도는 것과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 **두 자리**

뜻이 자릿수를 정합니다. 단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식으로 갈리는 것들

서술어	한 자리	두 자리
불다	바람이 분다	피리를 분다
가다	그가 간다	학교에 간다
크다	키가 크다 (상태)	—
울다	아기가 운다	—
밝다	날이 밝다	—
먹다	—	밥을 먹다
웃다	그가 웃는다	나를 비웃는다
떨어지다	앞이 떨어진다	시험에 떨어진다

'불다'가 특히 좋은 예입니다. 바람이 부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 주어만 있으면 되고, 피리를 부는 건 누가 무엇을 부는 일이라 둘이 필요해요.

세는 방법

하나씩 빼보세요. 빼도 말이 되면 필수가 아닙니다.

나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빼보면	말이 되나	판정
어제 를 빼면	나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	필수 아님
학교에서 를 빼면	나는 어제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	필수 아님
친구에게 를 빼면	나는 어제 선물을 주었다 — 누구에게? ×	필수
선물을 을 빼면	나는 어제 친구에게 주었다 — 무엇을? ×	필수

남은 것은 주어 + 친구에게 + 선물을 →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 '어제'와 '학교에서'는 왜 안 셀까요

빼도 문장이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수의적 부사어**라고 해요.

자릿수에는 필수적인 것만 셉니다.

확인문제 0.2

1. 서술어의 자릿수가 무엇인지 한 줄로 쓰세요.
2. '돌다'가 한 자리도 되고 두 자리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3. '불다'로 한 자리 문장과 두 자리 문장을 각각 만드세요.
4.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를 쓰세요.
피다[] · 먹다[] · 주다[] · 되다[] · 삼다[] · 닳다[]
5.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의 서술어는 몇 자리인가요? 세는 과정을 쓰세요.
6. 자릿수를 셀 때 '어제', '도서관에서'를 세지 않는 이유는?

STAGE 02 CLEAR

서술어의 자릿수

다음 03 · 홀문장과 겹문장

남은 것 8 / 10

책을 덮고 시작하세요. 문장 성분 일곱을 세 갈래로 나눠 그리고, 그 아래 **서술어의 자릿수**를 붙이세요.

힌트 — 자릿수는 **필수적인 성분만** 셉니다.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 0

☐ 단어 수와 어절 수가 다른 이유 0

☐ 문장 성분 일곱과 세 갈래 0.1

☐ 보어가 나타나는 자리 0.1

☐ 필수적 부사어가 무엇인가 0.1
- ☐ 자릿수의 정의 0.2

☐ '돌다'가 한 자리도 두 자리도 되는 이유 0.2

☐ '불다'로 만드는 한 자리 · 두 자리 0.2

☐ 세 자리 서술어 예 넷 0.2

☐ 자릿수 세는 방법 0.2

0.3

흘문장과 겹문장

건물을 옆으로 붙일지 안에 넣을지 정합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문장을 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나오는가.

흘문장 —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흘은 하나, 겹은 겹쳐진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 →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 **흘문장**

꽃이 피고 새가 운다. → 주어 둘, 서술어 둘 → **겹문장**

겹문장은 두 갈래입니다

갈래	어떻게 생겼나	그림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이 옆으로 붙음	주+서 + 주+서
안은 문장	문장이 안으로 들어감	주 (주+서) 서

이어진 문장 —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안은 문장 — 나는 **그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첫 번째는 두 문장이 나란히 서 있죠.

두 번째는 '그가 온다'가 **큰 문장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 여기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 기준이 둘입니다

겹문장을 나눌 때 **기준이 두 개**이고, 서로 다른 것을 봐요.

안은 문장 / 이어진 문장 → 형태로 나눔

대등 / 종속 → 내용으로 나눔

형태는 겉모양입니다. 안에 들어갔나, 옆에 붙었나.

내용은 관계입니다. 앞뒤가 대등한가, 하나가 딸렸나.

기준이 다르니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앞 권들에서 계속 나온 그 이야기예요.

이어진 문장 — 대등이나 종속이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앞뒤가 **동등함**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뒤가 앞에 **딸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관계	어미	예
나열	-고 · -며	꽃이 피고 새가 운다
대조	-지만 · -나	비가 오지만 춥지 않다
선택	-거나 · -든지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관계	어미	예
원인·이유	-어서 · -니까	비가 와서 못 갔다
조건·가정	-면 · -거든	비가 오면 안 간다
의도·목적	-려고 · -러	밥을 먹으러 갔다
배경·상황	-는데 · -더니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다
양보	-어도 · -더라도	비가 와도 간다
중단·전환	-다가	밥을 먹다가 나갔다
정도·심화	-수록	볼수록 예쁘다

★ 대등과 종속을 가르는 방법 — 순서를 바꿔보세요

대등하면 앞뒤를 바꿔도 뜻이 통합니다. 종속이면 안 통합니다.

원래	바꿔보면	판정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새가 울고 꽃이 핀다 ✓	대등
비가 오지만 춥지 않다	춥지 않지만 비가 온다 ✓	대등
비가 와서 못 갔다	못 가서 비가 왔다 ×	종속
밥을 먹으러 갔다	갔으러 밥을 먹다 ×	종속

원인과 결과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종속입니다. 나열이나 대조는 순서가 상관없고요.

★ 종속절은 부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문법책마다 다르게 말하는 자리거든요.

꽃이 피어서 마음이 흥겹다.

'꽃이 피어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절입니다.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이 말을 문장 가운데로 옮겨보세요.

마음이 **꽃이 피어서** 흥겹다.

들어가버렸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서'는 안긴 절이고, '흥겹다'를 꾸미니 **부사절**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리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속절은 대부분 문장 안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대등절은 안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 바람이 **비가 오고** 분다.

대등절은 절대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서로 대등하니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대등과 종속을 가르는 방법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답할까요

문제가 "이어진 문장인가 안은 문장인가"를 물으면 **겉모습대로** 답하면 됩니다. 앞에 있으면 종속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사절이에요.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가"를 물으면 **그렇다**가 답입니다.

이 책은 학교문법 기준을 따릅니다.

확인문제 0.3

1. 홀문장과 겹문장을 가르는 기준을 쓰세요.
2. 겹문장의 두 갈래를 쓰고 그림으로 설명하세요.
3. '안은/이어진'과 '대등/종속'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가요?
4. 대등과 종속을 가르는 방법을 쓰세요.
5. 다음을 대등과 종속으로 나누세요.
비가 오지만 간다 / 비가 와서 못 간다 / 밥을 먹고 잤다 / 밥을 먹으려고 갔다
6. "꽃이 피어서 마음이 흥겹다"의 '꽃이 피어서'를 문장 가운데로 옮기면 무엇이 되나요?
7. 대등절은 문장 안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쓰세요.

STAGE 03 CLEAR

홀문장과 겹문장

다음 04 · 안은 문장 — 문장이 문장을 품다

남은 것 7 / 10

0.4 안은 문장 — 문장이 문장을 품다

건물 안에 작은 건물을 넣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이어진 문장은 쉽습니다. 그냥 옆에 붙였으니까요.

어려운 건 안은 문장이예요.

안은 문장 — 다른 문장을 품고 있는 문장

안긴 문장 = 절(節) — 품어진 쪽

절(節)은 마디입니다. 대나무 마디처럼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예요.

절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② 혼자서는 독립하지 못한다
- ③ 큰 문장 안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한다

나는 그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온다'를 보세요. 주어(그가)와 서술어(온다)가 있죠(①). 그런데 저 자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올 수 없고(②), 큰 문장에서는 '사실'을 꾸미는 **관형어 노릇**을 합니다(③).

그래서 절입니다.

절은 다섯 가지 — 무슨 성분 노릇을 하느냐로

절	무슨 성분 노릇	표지
명사절	주어·목적어	-(으)ㄴ · -기
관형절	관형어	-(으)ㄴ · -는 · -(으)ㄹ · -던
부사절	부사어	-이 · -게 · -도록
서술절	서술어	(표지 없음)
인용절	부사어	-고 · -라고

이름이 곧 하는 일입니다. 명사절은 명사처럼, 관형절은 관형사처럼 쓰이는 절이에요.

명사절

나는 그가 왔음을 알았다.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으)ㄴ'과 '-기'가 붙습니다. 3권 0.8에서 배운 그 명사형 어미예요.

★ 그런데 둘은 아무렇게나 바뀌지 않습니다 ★★★★★

왜 어떤 자리엔 '-(으)ㄴ'이 오고 어떤 자리엔 '-기'가 올까요.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 옳았~~기~~를 깨달았다 ×
나는 내일 날씨가 **맑기**를 바란다. → 맑~~음~~을 바란다 ×

바뀌 놓으면 곧바로 이상해집니다. 규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으)ㄴ은 이미 일어난 일 (완료)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완료)

'그가 옳았다'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 '-(으)ㄴ'입니다. '내일 날씨가 맑다'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 '-기'고요.

★ 그래서 뒤에 오는 서술어가 같습니다

	어울리는 서술어	예
- (으)ㄴ (완료)	알다 · 깨닫다 · 밝혀지다 · 드러나다 · 목격하다	그가 범인 임 이 밝혀졌다
- 기 (미완료)	바라다 · 기다리다 · 원하다 · 시작하다 · 결심하다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서술어가 명사절의 어미를 부릅니다

'밝혀지다'는 이미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니 완료와 어울리고, '기다리다'는 아직 없는 일을 향한 말이니 미완료와 어울립니다.

💡 외울 필요 없습니다. 뜻으로 같습니다.

헛갈리면 "이 일이 이미 일어났나?"만 물어보세요.

일어났으면 -**(으)ㄴ**, 아직이면 -**기**입니다.

⚠ 시험은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은?" — 어미를 바꿔치기한 문장을 섞어 놓습니다.

"나는 그가 오기를 알았다" × — '알다'는 완료와 어울리는데 '-기'가 왔죠.

문장 성분이 다 맞는데도 어색한 이유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형절

내가 읽은 책

꽃이 피는 계절

그가 올 시간

우리가 놀던 곳

시제까지 표시합니다. -**(으)ㄴ** (과거) · -**는** (현재) · -**(으)ㄹ** (미래) · -**던** (회상).

★ 관형절은 두 종류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특징	꾸밈 받는 말이 절 안에서 빠져나옴	꾸밈 받는 말이 절의 내용 그 자체
예	내가 읽은 책	그가 온다는 사실

관계 관형절 — 빠져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은 책

원래 문장: 내가 책을 읽었다

→ '책을'이 밖으로 나가서 꾸밈 받는 말이 됨

'책'을 절 안에 다시 넣어보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죠.

동격 관형절 — 빠져나온 자리가 없습니다.

그가 온다는 사실

절: 그가 온다 (완전함)

'사실' = 그가 온다는 것 그 자체

'사실'을 절 안에 넣을 자리가 없죠.

절 전체가 '사실'의 내용이니깐요.

판별법: 꾸밈 받는 말을 절 안에 넣어보세요.

문장	넣어보면	판정
내가 읽은 책	내가 책을 읽었다 ✓	관계
그가 온다는 사실	그가 온다 (사실 넣을 자리 없음)	동격
그가 만난 사람	그가 사람을 만났다 ✓	관계
그가 떠났다는 소문	그가 떠났다 (소문 넣을 자리 없음)	동격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그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꽃이 예쁘게 피었다.

서술절

표지가 없어서 제일 헛갈립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주어가 둘인 것처럼 보이죠.
'코끼리는'도 주어 같고, '코가'도 주어 같고요.

실은 이렇습니다. 큰 주어는 '코끼리는'이고, 서술어 자리에 '**코가 길다**'라는 문장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주어 서술절

같은 구조들:

토끼는 귀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
이 책은 값이 싸다.
나는 돈이 없다.

주어가 둘로 보이면 서술절을 의심하세요.

인용절

그가 "배부르다"라고 말했다. → 직접 인용
그가 배부르다고 말했다. → 간접 인용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표지	큰따옴표 + 라고	고
그대로?	말한 그대로	바꿔서

★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다섯 가지가 바뀝니다

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먹었다"라고 말했다.
→ 그가 **자기가** 그때 거기서 먹었다고 말했다.

무엇	어떻게
㉠ 인용 조사	라고 → 고
㉡ 종결 어미	감탄·의문·명령·해요체 → -다 · -냐 · -라 · -자
㉢ 대명사	내가 → 자기가
㉣ 시간·장소 표현	지금 여기서 → 그때 거기서
㉤ 높임 표현	말하는 사람 기준으로 조정

시점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인용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다시 말하는 거니까요.

지아가 "꽃이 벌써 폈구나!"라고 했다. → 지아가 꽃이 벌써 **폈다**고 했다. (감탄형 → 평서형)
아들이 "잠시만 집에 **계세요**"라고 했다. → 아들이 잠시만 집에 **있으**라고 했다. (명령형 · 높임 사라짐)

★ '자기'로 바꾸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 민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했다.

'너'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 듣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예요. '자기'는 **앞의 주어로 되돌아갈 때만** 씁니다. 3권의 재귀칭 그대로입니다.

(담화 속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6권 규범론 1단계에서 이어집니다.)

확인문제 0.4

1. 절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쓰세요.
2. 절 다섯 가지를 쓰고 각각 무슨 성분 노릇을 하는지 쓰세요.
3.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의 판별법을 쓰세요.
4. 다음이 관계인지 동격인지 쓰세요.
내가 만난 사람 / 그가 떠났다는 소문 / 꽃이 피는 계절 / 비가 온다는 예보
5.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구조를 설명하세요.
6.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바뀌는 다섯 가지는?
7. 다음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세요.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STAGE 04 CLEAR

안은 문장 — 문장이 문장을 품다

다음 05 · 문장의 짜임 정리

남은 것 6 / 10

0.5 문장의 짜임 정리

여기까지 지은 것을 도면으로 정리합니다.

교재
단독

이 단계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교재만으로 충분한 분량이라 따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준비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0.3과 0.4에서 배운 것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장을 분석**해봅니다.

전체 지도

출문장	주+서 한 번	
접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 / 종속
	안은 문장	명사절 · 관형절 · 부사절 · 서술절 · 인용절

분석 순서

- ① 서술어를 모두 찾는다 — 서술어 수 = 절의 수
- ② 각 서술어의 주어를 찾는다
- ③ 옆에 붙었는지 안에 들어갔는지 본다
- ④ 안에 들어갔으면 무슨 성분 노릇인지 본다

연습 ① — 꽃이 피고 새가 운다

단계	확인
서술어	피고 · 운다 → 2개
주어	꽃이 · 새가
짜임	옆에 붙음 → 이어진 문장
관계	순서 바뀌도 통함 → 대등

연습 ② — 나는 그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단계	확인
서술어	온다는 · 알았다 → 2개
주어	그가 · 나는
짜임	'그가 온다'가 안에 들어감 → 안은 문장
절	'사실'을 꾸밈 → 관형절
종류	'사실'을 절 안에 넣을 자리 없음 → 동격

연습 ③ —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이 취소되었음을 알았다

단계	확인
서술어	와서 · 취소되었음 · 알았다 → 3개
짜임	'비가 와서'는 옆에 붙음 → 이어진 문장 (종속)
	'소풍이 취소되었음'은 안에 들어감 → 안은 문장
절	목적어 노릇 → 명사절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이 한 문장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 ④ — 코끼리는 코가 길고 귀가 크다

단계	확인
서술어	길고 · 크다 → 2개
큰 주어	코끼리는
짜임	'코가 길다'와 '귀가 크다'가 서술어 자리에 → 서술절
그 안에서	두 서술절이 '-고'로 이어짐 → 대등

★★★ 그래서 어느 쪽으로 쓸까요 — 표현 효과 ★★★★★

여기까지는 "이 문장이 무슨 짜임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묻습니다.

"내가 쓸 때는 어느 쪽으로 써야 하나?"

홀문장은 간명하게, 겹문장은 상세하게

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써봅니다.

㉠ 어쩐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평소보다 개운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나서 대충 세수만 하고 헐레벌떡 나오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고요한 게 참 평화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참.

㉡ 어쩐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평소보다 개운했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났다. 대충 세수만 하고 헐레벌떡 나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고요했다. 참 평화롭다고 느껴졌다. 그 순간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읽는 느낌이 다릅니다.

효과	
㉠ 한 문장으로 묶음	사태들의 관련성이 드러남 — 늦게 일어나 허둥댄 것과 일요일이었다는 것이 하나로 이어짐 . 필자의 감정과 그 이유가 명확해짐
㉡ 여러 문장으로 나눔	사태를 간명하게 기술 — 문장 사이의 연결을 독자가 채우게 되어 다양한 해석이 열림

무엇을 묶고 무엇을 끊을지가 곧 생각의 구조입니다

긴 문장이 나쁘고 짧은 문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묶을 이유가 있으면 묶고, 끊을 이유가 있으면 끊는 겁니다.

★ 김훈은 홀문장으로 전쟁을 그렸습니다

『칼의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명량 해전 직전이에요.

적들은 아침에 왔다. 일출 무렵에 바람은 잠들었다. 해가 떠오르자 아침 안개는 스러졌다. 보름사리의 북서 밀물이 명량의 역통에서 소용돌이쳤다. 허연 파도들이 말뚝처럼 출렁거리며 목포 쪽으로 몰려갔다. 물보라가 날렸다. 진도 동쪽 해안 금남산 뒷부리에서 연기가 올랐다. 봉화는 섬의 서쪽 해안을 따라 옮겨붙었다. 금남산 봉화를 용장산이 받았다. 용장산은 벽파진이 받았고, 벽파진은 망금산이 받았다.

문장이 전부 짧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흘문장이예요.

짧은 문장이 연달아 오면 숨이 가빠집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긴박함을 문장 구조로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에 긴 겹문장을 하나라도 넣었다면 그 긴장이 풀렸을 거예요.

봉화 대목을 다시 보세요.

금남산 봉화를 **용장산**이 받았다. **용장산**은 **벽파진**이 받았고, **벽파진**은 **망금산**이 받았다.

앞 문장의 주어가 뒷 문장의 목적어가 되고, 다시 주어가 됩니다. 봉화가 산에서 산으로 옮겨붙는 모습이 **문장 구조 자체로** 그려져요.

💡 유사한 구조를 연쇄적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내용만 전하려면 "봉화가 금남산에서 용장산, 벽파진을 거쳐 망금산까지 이어졌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하나씩 옮겨붙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끊어 써야 그 간격이 생겨요.**

★ 마틴 루서 킹은 한 문장을 떼어 냈습니다

『위싱턴 행진 연설』의 한 대목을 두 가지로 놓아 봅니다.

원문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바꾸면 — 나에게는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이 훨씬 강합니다.

핵심 문장을 흘문장으로 떼어 앞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먼저 던지면, 듣는 사람은 "무슨 꿈인데?" 하고 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기대가 다시 생기죠.

바꾼 쪽은 꿈의 내용이 다 나온 뒤에야 '꿈이 있습니다'가 옵니다. 기다릴 것이 없어요.

⚠ 이계 문장 구조를 배우는 값입니다

연설이든 글이든 무엇을 **출문장**으로 떼어 낼지를 정하는 게 곧 무엇을 **강조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문장 구조는 분석의 대상이기 전에 선택의 도구입니다.

★ 길이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온갖 나무가 자랐다 — **출문장**

내가 심은 나무가 자랐다 — **결문장**

둘 다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출**, 하나는 **결**입니다.

'온갖'은 **관형사**라 절이 아니고,

'내가 심은'은 **주어+서술어**를 갖춘 **관형절**이거든요.

길이가 아니라 '주어+서술어'가 몇 번인지를 셉니다

💡 '와/과' 때문에 갈리기도 합니다.

"현우와 민서가 여행을 떠났다" — 이 문장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와'가 **부사격 조사**(함께)면 → **출문장**

'와'가 **접속 조사**(현우도 떠났고 민서도 떠났고)면 → **결문장**

같은 문장이 뜻에 따라 짜임까지 달라집니다.

확인문제 0.5

1. 문장의 짜임을 표로 정리하세요.
2. 분석 순서 네 단계를 쓰세요.
3. "봄이 오면 꽃이 핀다"를 분석하세요.
4. "나는 그가 착한 사람임을 알았다"를 분석하세요. 절이 몇 개인가요?
5.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이 한 문장에 같이 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6. 홀문장과 겹문장은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7. 김훈은 『칼의 노래』에서 왜 짧은 홀문장을 연달아 썼을까요?
8. 마틴 루서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홀문장으로 떼어 앞에 놓은 이유를 쓰세요.
9. "온갖 나무가 자랐다"와 "내가 심은 나무가 자랐다"는 길이가 비슷한데 짜임이 다릅니다. 왜인가요?
10. "현우와 민서가 여행을 떠났다"가 홀문장도 되고 겹문장도 되는 이유를 쓰세요.

STAGE 05 CLEAR

문장의 짜임 정리

다음 06 · 종결 표현 — 문장을 끝내는 방법

남은 것 5 / 10

홀문장에서 시작해 겹문장으로 가지를 뺏으세요. 겹문장은 둘로, 안은 문장은 다시 다섯으로 갈라집니다.

힌트 — 나누는 기준이 **둘**입니다. 형태로 한 번, 내용으로 한 번.

문장

다 그렸나요? — 이제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 옆의 번호가 돌아갈 단계입니다.

- ☐ 홀문장과 겹문장을 가르는 기준 0.3
- ☐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0.3
- ☐ '형태'와 '내용' 두 기준 0.3
- ☐ 대등과 종속을 가르는 방법 0.3
- ☐ 종속적 연결어미 일곱 0.3
- ☐ 절이 되기 위한 세 조건 0.4
- ☐ 절 다섯과 각각의 성분 노릇 0.4
- ☐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0.4
- ☐ 서술절 — 주어가 둘로 보이는 것 0.4
- ☐ 간접 인용에서 바뀌는 세 가지 0.4
- ☐ 문장 분석 네 단계 0.5

맛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짜임을 세웠으니 이제 문법 요소입니다

CHAPTER 06	종결 표현 — 문장을 끝내는 방법
CHAPTER 07	시간 표현 · 동작상 · 부정 표현
CHAPTER 08	높임 표현
CHAPTER 09	피동과 사동
CHAPTER 10	남은 표현들

여기까지가 **문장의 짜임**입니다. 성분과 자릿수, 홑문장과 겹문장.

뒤부터는 **문법 요소**입니다. 흠어놓으면 안 외워지는 것들이라,
전부 '문장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한 질문 아래 모았습니다.

특히 CHAPTER 09의 **피동과 사동**은 2권에서 배운 지배 접사가
실제로 문장 구조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전체 114쪽 · 정답과 해설 · 강의 영상 QR 11개